



**쇠고기 원산지 점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광우병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립 농산물 품질관리원 전남지원·주부교실 합동 단속반이 7일 광주시 남구 봉선동 한 식육점에서 쇠고기 원산지 표시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위정기자 jrw@kwangju.co.kr

## ■ 미국산 쇠고기 파동

### ① 먹을거리 패닉

# “쇠고기 먹기가 무서워요”

불안을 넘어 공포로 다가오는 식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따른 인간 광우병 논란으로 증폭된 먹을거리 안전문제가 국민적 과제로 떠올랐다. 고병원성 조류독감(AI) 확산과 미국산 유전자 변형(GMO) 옥수수 수입까지 겹치면서 걱정을 수 없이 피지는 '먹을거리 과잉'에 정부가 허둥지둥 대는 사이 국민은 '뭘 먹어야 할 새냐'가 아닌, '어떤 걸 고르면 안전하겠느냐'는 걱정에 앞서 식탁에 앉기가 두렵다. <관련기사 3·4면>

## 패스트푸드·한우 업소 매출 '뚝' 허술한 단속체계 개선의 기회로

7일 오후 7시 퇴근 길에 가까운 대형마트의 식품매장에 들른 이민숙(여·42)씨는 곧바로 친환경 유기농 코너로 향했다. “광우병 쇠고기 때문에 조류독감 걸린 닭·오리, 유전자 변형 식품까지 유통된다는데, 일반 매장에 나온 먹을거리는 도통 믿을 수가 없네요.” 이씨는 유기농 과일과 채소, 무항생제 육류 등이 제품보다 20~30% 이상 값은 비싸지

만, 식구들 안전을 위해서 친환경 위주로 식단을 확 바꾸기로 했다. 이보다 앞선 이날 낮 12시 광주 모 여고 식당. “미국산 쇠고기 슬니까?” 학생들의 물음에 영양사 신모(여·33)씨는 한우만 쓴다고 손사래를 쳤다. “아예 쇠고기를 먹이지 말라는 학부모 전화가 하루에도 수십 통 옵니다.” 신씨는 상당수 학생이 쇠고기 덮밥을 먹지 않는 바람에 남

은 음식이 평소보다 40%나 늘었다고 했다.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의 식당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온 종일 이어졌다.

한우를 취급하는 광주·전남 유명 백화점과 음식점으로도 불똥이 튀어, 30~50%의 매출 감소로 나타났다. 롯데리아, 맥도날드, 버거킹, 아웃백 등 패스트푸드 업체들도 마찬가지다. 모두 호주산과 뉴질랜드산 쇠고기를 써왔고, 미국산으로 바꿀 계획이 없다고 해도 매출감소를 피하지 못하고 있다. 육수를 사용하는 일부 중국음식, 냉면, 라면 등도 “무서워서 못 먹겠다”는 소비자들 때문에 수요가 크게 줄고 있다.

광주시 북구 C중국 음식점의 경우 우 최근 자장면과 냉면 등 쇠고기류가 들어가는 음식에 대한 소비자들이 급격히 줄어 30% 이상 매출이 감소했다.

이런 공포는 정부의 땀집식 대응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많다. 광

주·전남에 미국산 쇠고기를 판별해 낼 수 있는 식별기가 단 1대도 없어 한우나 호주산 등으로 둔갑해도 찾아 낼 수 없는데다, 적발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허술한 단속체계도 먹을거리 불안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쓰레기 만두”, “기생충 김치”, “생쥐 새우깡” 등 먹을거리 파동이 날 때만 관심을 갖고 마는 우리 사회의 ‘반짝 정서’가 화를 키웠다는 반성도 있다.

“올바른 학교급식을 위한 광주운동본부” 이영선(여·45) 사무국장은 “위탁급식을 하는 학교에서 외국산을 쓸 가능성이 있다. 한우를 써야 하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체의 특성상 미국산을 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미국산이 들어올 경우 아이들 먹을거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주정기자 jnews@kwangju.co.kr

# 순천 효천고 수학여행 버스 한라산서 굴러 학생 등 3명 사망 40명 부상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갔던 순천 효천고 수학여행단을 태운 버스가 전복되면서 학생 2명을 포함, 3명이 숨지고 40명이 중경상을 당했다. <관련기사 7면>

7일 오후 1시 20분께 제주도 한라산 북쪽 여승생저수지 앞 1100도로에서 순천시 효천고교 수학여행단 40여 명을 태운 버스가 전복됐다. 이 사고로 최대연(16), 김성재(16)군 등 효천고 1학년 학생 2명과 버스 운전사 박남규(45)씨 등 3명이 숨지고, 학생과 인솔교사·가이드 등 4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날 사고는 한라산 등반을 마친 수학여행단을 태운 버스가 내리막 일 방통행로 끝 부분 김립길에서 커브길을 돌지 못하고 소공원 돌담을 들이

받은 뒤 잡목지대에 처박히면서 일어났다. 사고 당시 대부분의 학생들은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상태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급경사 내리막길에서 운전자들이 ‘뚝 브레이크’를 잠시간 사용하면서 브레이크 오일에 기포가 발생해 브레이크가 일시 작동하지 않는 ‘베이프 록(Vaper Lock)’ 현상으로 인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효천고 1학년 수학여행단 434명(인솔교사 14명 포함)은 지난 5일 선박편으로 제주에 도착했다. 이후 버스 11대에 나눠 타고 제주도내 관광지 등을 둘러본 뒤 8일 순천으로 돌아올 예정이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이상 북 행정부지사를 본부장으로 한 사고 수습지원대책본부를 구성했다.

다음은 7일 오후까지 확인된 사망·부상자 명단.

▲사망자=박남규(운전기사) 김성재(남·16세·이상 한국병원 안치) 최대연(남·16세·한라병원 안치)

▲부상자=안철수(16) 박비전(16) 김민철(16) 하성환(16) 허셋별(여·16) 유은화(여·16) 박태민(16) 이항아(여·16) 박보린(여·16) 유혜진(여·16) 이경미(여·16) 김승철(16) 신수진(여·16) 김민지(여·16) 강민규(16) 윤상조(16)(이상 한라병원 치료 중) 정성철(16) 박주영(여·16) 박다운(여·16) 김희원(여·16) 김현경(여·16) 이정수(16) 양성후(16)(이상 한국병원 치료 중)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제주일보 = 현봉철기자 hbc@

# “국민 건강 위협 판단 땀 미 쇠고기 수입 즉각 중단”

## 이명박 대통령 밝혀

이명박 대통령은 7일 “쇠고기 개방으로 국민 건강에 위협을 가하는 일이 있다면 즉각 수입을 중지할 것이고 대책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이번 한·미 쇠고기 협상이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어서 추후 정치권의 책임 공방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전북도청에서 첫 시·도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정

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을 주는 일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각오를 갖고 있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국민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면서 “어떠한 것도 국민 생명과 바꿀 수 없으며 국가가 존재한다는 것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쇠고기 수입으로 국민이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하겠다”면서 “낙농업자도 지원하고 국민 걱정에 대한 대처도 강력하게 하고자 한다”고 거듭 약속했다.

한편, 한승수 국무총리는 8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제하의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미 쇠고기 안전성 논란에 대한 정부의 총체적인 입장을 설명하고 국민의 협조를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목포·순천·나주 전국서 가장 조용

주택가는 전남이 전국에서 가장 조용하고, 공장은 광주가 가장 시끄러운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작년 전국 32개 도시의 1천466개 지점에서 환경소음을 측정한 결과 주택·학교·병원 지역(환경기준 낮 50dB, 밤 40dB)의 경우 목포·순천·나주·마산이 가장 낮은 소음도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7일 밝혔다.

낮시간 소음도는 목포·순천·나주가 48dB로 측정돼 가장 낮았으며, 밤에는 순천·나주·마산이 39dB로 최저를 기록했다.

항공기 소음은 광주공항(86웨클), 청주공항·대구공항(85웨클), 군산공항(83웨클) 등 7개 공항이 소음 한도(75웨클)를 초과했다.

/김주정기자 jnews@

피부과학  
식물 유기자료를 주춧돌로  
[IOPE] 피부과학 연구소 [IOPE] 연구소

IOPE